

VD SPECIAL

신문기사로 보는 벤처 10년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기업 수가 7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럼에도 지난 10년간 벤처기업이 걸어온 길은 거칠다. 신문 지면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벤처기업 격동의 세월, 그리고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는 벤처인의 맥박소리를 느껴보자.



1995. 12. 02 / 벤처기업협회 출범
벤처기업협회가 1995년 말 출범했다. 당시 이민화 회장은 10년 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벤처기업) 4만 3천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럼 앞으로 10년의 목표는 무엇일까?



1996. 05. 17 / 코스닥시장 출범
기술중심기업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코스닥시장이 출범했다. 2000년 3월 21일에는 제3시장도 문을 열었다. 지수변동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웃고 울어야만 했다.

1997. 04. 14 / 주식 액면가 인하, 스톡옵션 도입
당시 5천원이던 주식 액면가를 5백원으로 낮추는 작업이 추진됐다. 이후 협회 주도로 스톡옵션제가 도입됐다. 스톡옵션제는 우수 인재확보를 위한 방책으로 활용됐다.



10 Anniversary



1997. 04. 15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입법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근간을 담고 있는 <특별조치법>이 제정됐다. 5월 7일, 입법이 예고되면서 본격적인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시작됐다.

2000. 03. 10 / 코스닥 최고 정점(283.4P)
즈문 해를 보낸 코스닥시장이 정점 283.4P를 찍었다. 총 473개 법인의 시가총액은 무려 92조 9천억원. 하지만 불과 10일 만에 60P가 빠지는 등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다.



2004. 11. 09 / 벤처 재도약 특단의 대책
'다시 벤처다!'를 주창한 벤처기업인의 뜻을 받아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벤처인들은 <벤처 활성화 대책>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다.



2003. 04. 21 / 벤처 구조조정
연이어 대란설이 터졌다. 벤처기업 내부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다. 2000년 이후 벤처업계는 감내하기 어려운 성장통을 겪어야 했다.



2005. 11. 28. / 코스닥 상승 일수 신기록
코스닥 지수 상승 일수가 사상 유례없는 신기록을 작성했다. 제2 벤처 붐이 시작된 것이다. 한 단계 레벨업된 벤처기업의 진가가 다시 빛을 발하고 있다.